

한국타이어-미쉐린 M&A 가능성 희박

미쉐린, 6월24일부로 한국타이어 지분 10% 확보 ... 협상력 강화 차원

교보증권은 6월26일 한국타이어에 대해 미쉐린에 의한 적대적 인수·합병(M&A)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. 송상훈 연구원은 “6월24일부로 미쉐린이 당초 예정된 한국타이어 지분 10%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”며 “그러나 한국타이어의 대주주 지분 34.78%, 자사주 3.61%, 10% 이상으로 추정되는 국내 우호지분 등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 한국타이어에 대한 미쉐린의 적대적 M&A 가능성은 낮다”고 말했다.

또 “한국타이어는 전략적 제휴를 통해 총 생산능력의 1.6% 정도를 미쉐린에 OEM(주문자 상표방식)으로 납품하고 있는데 미쉐린은 추가 물량을 요구하고 있다”며 “미쉐린의 지분확대는 M&A 보다는 협상력 강화차원으로 보인다”고 분석했다.

그리고 “한국타이어의 주가는 원재료비 상승에 따른 영업실적 부진이 예상돼 약세를 보이다 최근 미쉐린의 지분매입으로 일시 반등했지만 초기투자비 부담으로 적자상태인 헝가리공장의 가동률 상승으로 4/4분기부터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돼 저가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”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 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8/06/26>